

# 이주열 “수출 여건 낙관 어렵다”

### “미국 보호무역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진행”... 참석자들 ‘종합적인 대응 방안 중요’ 공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8일 “새해 들어 불과 한 달여 사이에 기존 세계 무역 질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향후 수출 여건을 낙관할 수만은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워지고 있는 무역 환경에 대한 대응과 준비는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 과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총재는 “영국에서는 1월 중순 영국의 메이 총리가 하드 브렉시트를 공식화했고,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을 추진함과 아울러 독일·중국·일본에 대해 환율 조작을 경고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나 당초에는 공약 사항 중 얼마만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했는데도 실행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수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40% 대로 매우 높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심리 위축으로 민간 소비 등 내수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출 부진이 곧바로 성장 부진으로 이어질 수밖



보험사기 근절 결의 8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2017 보험사기근절 선포식에서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보험사기근절 결의를 하고 있다.

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도 상황의 긴박함을 인식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동안 상당한 경험과 정보, 네트워크 및 인적자본을 축적해온 민간 부문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총재는 지난달 수출 동향에 대해 “올해 1월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한데다 2013년 1월 이후 4년 만

에 투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이와 같은 수출 실적 개선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수출 개선이 지속될 경우 설비투자 등 내수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나 세부 조치들과 관련해서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어 큰 그림 하에서 중

합적인 대응 방안을 세워 나가는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대중 수출의 경우 통관·비관세 장벽 강화가 예상돼 정부와 민간 부문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우리 수출을 미국, 중국 등 기존 주요국에서 벗어나 러시아, 중동 등 제3차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뉴시스

## ‘연금저축 어드바이저’ 개시

### 금융 포털 ‘파인’ 서기초정보 입력하면 진단·정보 제공

이달부터 노후대비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쉽게 알려주는 온라인 상담서비스가 운영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을 통해 ‘연금저축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연금 수령정보와 예상 퇴직연령 등 기초정보를 입력하면 노후대비 필요 자금을 진단하고 투자성향 등을 분석해 적합한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다. 희망하는 경우 노후재무상담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필요노후자금 산정 시 향후 노후생활비, 물가상승률, 기대수익률 등의 산출변수를 본인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연금저축상품은 원금손실 부담 여부와 기여금 납부방법, 연금수

령 방법, 수수료체계에 대한 선호를 조사해 개별성향에 적합한 상품유형을 알려준다. 소비자가 상품유형을 선택하면 해당 유형에 속하는 연금저축상품 목록이 제시된다.

또한 중도해지 시 손실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과 연금저축 적립·해지·수령 시 절세 노후우 등 연금저축 관련 정보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좀 더 자세한 노후설계가 필요한 소비자를 위해 금감원의 무료 금융전문가도 연계된다. 국제공인재무설계사가 노후준비와 부채관리 방법 등을 제시하는 서비스다. 연금저축 어드바이저 서비스 메뉴인 ‘전문가에게 상담받기’를 클릭하면 온라인 또는 대면·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다. /뉴시스

## 현대차, 쏘나타 친환경차 中 출시 연기

### 내년 2월로... ‘배터리 보복’에 중국 CATL 제품으로 바꾸기로

‘현대자동차가 오는 4월 중국 시장에 선보이려고 했던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출시 시점을 내년 2월로 미루기로 했다.

이 차에 탑재 예정이었던 LG화학의 배터리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베이징현대차는 쏘나타 PHEV에 장착할 배터리를 중국 업체 CATL이 만든 제품으로 바꾸기로 최근 결정했다.

PHEV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 통상 1년 정도가 걸려 출시 시점을 당초 예정보다 10개월 뒤인 오는 2018년 2월로 연기했다.

IG화학과 삼성SDI는 지난해 6월 중국 정부의 제4차 전기차 배터리 모범 기준 인증에서 탈락했다. 현대차는 당초 IG화학이 향후 심사에서 인증을 통과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인증을 받지 못하고,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한국 업체의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을 제외했다. 이같은 조치는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자국 업체 육성 의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대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경우 판매가 어려워 배터리 교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차 시장이다. /뉴시스

## 한국, 제3국 ‘통화스왑’ 강화

### 美·中·日 불확실... 올해 말레이시아·호주와 체결

압 논의는 양국 외교 관계 악화로 지난달 중단됐다. 한미 통화스왑은 2010년 계약이 만료된 이후 재협상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맺고 있는 통화스왑은 오는 10월 만기가 다가오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양국간 경제 관계가 악화되고 있어 연장을 낙관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 불확실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3600억 위안, 약 60조2000억원), 말레이시아(150억 링깃, 약 3조9000억원), 호주 100억 호주달러, 약 8조7000억원), 인도네시아(115조 루피아, 약 9조9000억원), 아랍

에미리트(200억 디르함, 약 6조2000억 원), 차이나미이니셔티브(384억 달러, 약 43조9000억 원) 등과 통화스왑을 맺고 있다.

이 중 중국과의 통화스왑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달하고, 달러 스왑은 차이나미이니셔티브 다자화(CMM) 협정이 유일하다. CMM은 다자 협정이란 통화스왑의 실효성이 양자협정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한은이 호주와 통화스왑을 확대한 것은 금융 안정망 다변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호주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가장 높은 AAA의 국가신용등급을 받고 있고, 호주달러가 주요 국제통화

의 하나로 거래되고 있어 통화스왑 확대의 득이 크다는 평가다.

또 이전에는 한-호주 통화스왑을 무역결제자금으로만 활용할 수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금융안정을 위한 인출도 가능해져 실효성이 훨씬 높아진 측면도 있다.

정부와 한은은 지난해 10월 계약 기간이 끝난 한·아랍에미리트 통화스왑과 오는 3월 만기가 도래하는 한·인도네시아 통화스왑 연장에 나설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 만기가 되는 한·중 통화스왑 연장을 위한 협의도 시작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중 통화스왑은 아직 만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3~4개월 전부터 협상을 시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경제적인 문제와 정치·외교적인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게 우리측 견해”라고 말했다. /뉴시스

## 일상 속 이야기 ‘피플 앤 카카오’ 오픈

카카오는 8일 다양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카카오가 갖는 의미를 인터뷰 형식의 콘텐츠로 담아낸 ‘피플 앤 카카오(People & Kakao)’를 오픈했다.

카카오는 이용자, 카카오를 일지러로 삼는 종사자, IT업계 전문가, 파트너, 카카오 임직원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피플 앤 카카오’에 진솔하게 담았다.

‘피플 앤 카카오’에서는 카카오톡 선

물하기로 마음을 전하는 개그맨 유세운, 카카오톡으로 안전하게 꽃을 배달하는 플로리스트 오윤지, 자기가 쓰고 싶은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직접 만들어 사람들과 소통하는 이모티콘 작가 구경선, 카카오톡이 최다 여행을 달성한 택시 기사 윤동하, 카카오톡라이버로 새로워진 대리운전 문화를 실감하는 기사 김민섭 등 총 20명의 이야기를 엮을 수 있다. /뉴시스



## 부안

으로

## 마실

오세요

주소: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67, 202호

**만복건설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 扶來滿福